



김영만 초대회장 ‘민주시민상’ 수상

우리회 초대회장이며 고문인 김영만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상임대표가 10월 16일 (토)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에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19회 민주시민상’ 을 받았다.

김영만 고문은 1989년 우리회 초대회장을 시작으로 친일청산 시민행동연대 상임대표, 전두환 일해공

원 반대 공동위원장, 3·15 정신계승 시민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 등 민주화 운동을 위하여 온 삶을 바쳤다. “상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생각해볼 때 그동안 활동에 대한 회의도 생긴다” 면서 “혼자 한 일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에 혼자만 상을 받는 게 미안하기도 하다” 는 소감을 밝혔다. (인터뷰 출처 : 경북일보)

제5회 원탁토론 학술 심포지엄 우리 교육 평가 제도를 평가한다

10월 23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에서 원탁토론아카데미 (원장 강치원, 강원대학교 교수)가 주최하고 우리회를 비롯한 9개 단체가 후원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교원양성

을 비롯한 내신, 대입제도, 학교, 연수기관 등 우리 교육관련 모든 부문에 대한 평가제도를 4개 분과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우리 교육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사진제공 : 교육희망

학생인권 침해하는 시행령 개정 시도 규탄

교과부는 9월 17일 제정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10월 7일(목) ‘학생권리 신장방안 마련 관계자회의’ 를 열어 초·중·고등교육법개정안(교육감의 학칙인가권 폐지)과 함께 시행령에 근거한 학칙에 따라 학생의 일반적 권리 행사를 제한하려 하

였다. 수십 년 간 억눌려온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가로막고 학생통제를 강화하고 퇴학을 일상화하려는 시도를 막고자 우리회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모여 10월 12일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14기 상담원양성교육’ 열려

우리회 학부모상담실에서는 2010년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10회에 걸쳐 ‘14기 상담원양성교육’ 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상담, 인권, 교육 철학, 인터넷중독 예방, 진로상담, 청소년기 심리

의 특성 등 상담을 위한 기초교육과정이었다.

교육수료생들은 11월부터 4개월간의 후속교육을 마치면, 2011년도 실습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달의 보도자료

전문은 홈페이지 성명서/보도자료 참조

10.08 [연대성명서]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10.20 [연대성명서] KBS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 폐기하라!

10.27 [연대논평] 대원외고 불법찬조금 수사 무위로 끝나는가

10.27 [연대기자회견문] 정부는 전교조 교사 파면·해임 지시를 철회하라!

이달의 주요기사

02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교양 서정초등학교

05 정책
2014년 대입선진화방안은 공교육을 포기한 개악안

08 기획특집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10 지부지회소모임-포항지회
미르벳 지역아동센터

11 상담실
친구와 다투다가 다친 아이의 치료비

15 사설
성적지상주의가 낳은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야

1회 도서관 살리기 2회 교장공모제 학교 3회 2010우리교육에바란다 4회 지역아동센터 5회 새터민학교 6회 꿈꾸는교실 7회 행복한 성적표 8회 공간민들레 9회 교육소외계층 지원 교사모금 10회 체벌 없는 학교 11회 배움의 공동체 **12회 고양 서정초등학교**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고양 서정초등학교’

우리회 특별위원회 새로운학교만들기팀에서는 경기도 혁신학교 학부모, 교사, 학교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배움의 공동체' 수업으로 학교혁신을 꿈꾸고 있는 시흥 장곡중학교를 지난 10월호 「학부모신문」에 소개한 바 있다. 이번 호에는 지역에서 혁신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회 회원들과 함께 올해 3월 개교하면서 혁신학교로 지정 받은 '고양 서정초등학교'를 찾아보았다. 우리회 광양 이희정, 정음 장세희, 광주 임진희,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이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주>

‘상 없는 학교’ ‘대회 없는 학교’

강매산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서정초등학교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서정마을 단지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신설된 학교로 깔끔하고, 도심에 있지만 탁 트인 공간이 인상적이다. 특히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배려가 학교 곳곳에 배어 있다. 복도에는 아이들과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들이 쉴 수 있는 소파가 놓여 있고,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학부모사랑방’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수신자 부담 전화기……. 학부모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학부모사랑방에는 정수기와 차가 준비되어 있다.

학교를 방문한 날은 마침 마추이아기의 박문희 선생님 강연이 있어 30여 명의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강의가 있거나 학교에서 필요한 강의가 있을 때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한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수시로 학교장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카페(cafe.daum.net/presj)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는 실명제이기 때문에 참여에 제한이 있지만 카페는 익명 참여가 가능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정초등학교는 ‘상 없는 학교’ ‘대회 없는 학교’로도 유명하다. 경쟁교육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학부모들도 환영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매달 ‘달적이’를 학부모들에게 보낸다. ‘달적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해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일종의 생활기록부다.

혁신학교는 학부모와 교사, 아이들이 꿈꾸는 완벽한 학교일까?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대 교장으로 부임한 이우영 교장은 “혁신학교는 지역적 실태에 기반해 세워져야하며 중심 가치를 세우고 공유해야 한다”며 학생 중심가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교사 중심이 되면 학부모와 갈등이 생기고, 아이들과는 달리 교사와 학부모는 혁신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학생 중심의 배움이 즐거운 수업, 협동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수업 중심의 가치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의 방향을 세우고 교사들이 공유해 함께 가야 하는 동행 중심 가치를 강조하며 “교사와 학부모의 영역에 벽을 치려고 하지만, 교실도 열어야 하고 학교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적 교사와 학부모와 함께 가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그냥 다 내놓고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며 서로 간에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학기 초에는 일부 학부모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한다. 혁신학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도 학습 능력까지 뛰어난 아이들로 키워주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욕심이 분출된 것이다. 그래서 체험학습 실시에 대해 놀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있는가하면 영어심화반, 영재반, 경제반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지금은 서로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하기는 하지만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않아 보였다.

서정초는 학부모회가 없다고 한다. 그동안 보여줬던 학부모회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조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신 학년마다 모이는 ‘다모임’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서우철 교사는 “역지로 만들어진 조직에서 강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발적인 모임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며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학교를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는 매월 첫 주 토요일에 모이는 것으로 정례화 시켰다. 논의할 내용이 없으면 밥이라도 먹고 헤어지더라도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을 하려는 것이다.

학부모와 교사는 가깝고도 먼 사이?

교육의 3주체를 학생, 교사, 학부모라고 한다. 그런데 학부모와 교사는 서로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을까? 교사 사이에는 학부모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학부모와의 관계에 거리를 두고 또 하나의 참모로 생각하며 어려워하기도 한다. 학부모라고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서우철 교사는 “우리 학교는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고가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학교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특히 교장선생님이 학부모와 거리를 깨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사실 예전에는 교육은 교사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학부모 참여의 장이 늘어나니 학부모도 교사가 되고, 생태교육·발도르프교육을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의 벽을 허무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특히 서정초등학교는 ‘아버지 모임’이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강연도 듣고, 토요일 오후 아이들과 놀기도 하며 1박2일 캠프도 했다고 한다. 주말에는 교사들과 배구시합도 한다.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이경원 교사는 학부모, 아이들과 함께 아침 7시에 강매산에 올라가 아침밥을 먹고 내려오고, 저녁에는 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하는 ‘아침햇살 저녁노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님 참여가 많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3명 정도 참여했는데 지금은 8명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학부모가 학교에 자주 방문하면 오해가 없어요.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체험학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지는 직접 만나 이야기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참관수업에서 학부모도 교사의 역할을 해 모둠의 구성원이 되어 참여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전에 미리 학부모들과 함께 사전협의하고 수업을 같이 진행해 나가는 거죠.”

이경원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교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 변화 모습을 학부모가 직접 보고 참여해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학부모가 학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옆집 아줌마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교육시스템 논리에 빠져들 수 있다고 한다.

교사나 학부모나 모두가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그 꿈을 이루게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만들어가는 교사들의 부담감도 크다. 여러 고민 속에서 선택한 교사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책임감이 얼마나 컸으면 어떤 교사는 악몽을 꾸기도 한다니…….

이경원 교사는 학교의 중심이 누구냐고 질문한다. 그가 생각하는 학교의 중심은 바로 ‘지역공동체’이다.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갈 때 혁신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정초등학교의 현실은 녹록치만은 않다. 학교 앞 공터에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경관훼손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먼지, 소음, 공사차량으로 인한 통학길 안전을 위협받게 될테니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랐던 학부모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강인수(새로운학교만들기팀 활동가)



혁신학교 뭐가 달라요?

2학년 작은 아이는 6학년 형과 형의 선생님과 가끔 아침 산책을 합니다. 아침 산책은 수업하기 20분 전에 학교 주변을 둘러보는 활동입니다.

2010년 4월 어느 날에 작은 녀석이 아침 산책을 하다가 달팽이를 발견하였답니다. 2학년 작은 아이가 교실로 가서 담임선생님께 보여드렸어요. 선생님께서는 관찰하고 놔 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키우고 싶다고 했더니 작은 컵에 상추를 넣고 달팽이를 넣어 주셨답니다.

그 날 집으로 돌아온 녀석, 현관에서부터 신발도 벗기 전에 종이컵에 담긴 달팽이 이야기를 쏟아 놓습니다. 그 리곤 연신 귀엽다며 컴퓨터로 달팽이의 습성(?)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달팽이가 달걀껍질을 먹을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고 <스스로 공책>에 달팽이에 관한 이야기도 쓰면서 그림도 그려 넣습니다. 3월에 학교 개교를

하면서 교화와 교목을 아이들과 학부모의 투표로 정했는데 달팽이 이름도 학교 나무와 꽃 정하듯 가족들의 투표로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5월 어느 날 교실 화분에 있던 토마토를 반 아이들과 함께 텃밭에 옮겨 심었습니다. 밭에 돌을 골라내다 마음에 쏙 드는 돌을 발견한 아이가 가방 가득 돌들을 주워왔습니다. 돌 안에 반짝이는 보석이 있다면선생님께 선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세면대에서 깨끗하게 씻어 신중하게 선물할 돌을 고릅니다. 그러는 아이를 보면서 돌을 선물한다니… 내심 안 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선생님한테 스승의 날 선물로 돌을 선물하고 싶다는 아이가 돌에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내면서 이 돌 저 돌을 뒤집어 봅니다. 가장 반짝거리는 보석이 많이 들어 있는 돌을 골라 선생님께 선물하겠다고 신

이 냈습니다. 스승의 날 아침에 A4 종이에 돌을 넣고 꼬깃꼬깃하게 해서 들고 나가는 아이를 보면서 혹시 선생님이 무심하게 넘기시면 속상해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날 집으로 돌아온 녀석은 신이 나서 “엄마, 우리 선생님이 고맙다고 하셨어!”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들 같다고 하셨다고 자랑이 늘어졌습니다. 그 돌을 들고 얼마나 수다스럽게 이말 저말 끝도 없이 했을까 안 봐도 뻔합니다. 그 말 다 들어주시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시고 감사했습니다.

혁신학교 뭐가 달라요? 묻는 엄마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 혁신학교라고요.

김은영(서정초 학부모)

서정초에 다니면서 달라졌어요



사진제공 : 이경원(서정초 교사)

옛날 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교장선생님께 달렸다. 교장선생님이 시키면 선생님이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 인원이 너무 많아 복직 거렸다. 그러나 혁신 초등학교에 와서 달라졌다. 혁신 초등학교는 산도 가고 체험도 하고 청결한 우리들로 바뀌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학교 혁신학교, 혁신학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 혁신학교 와서 나쁜 습관이 많이 없어졌다.

혁신 초등학교는 너무너무 좋다. 운동장은 흙, 큰 연못, 학교도 크고 선생님도 좋고 반친구들도 20명을 넘지 않아서 너무 좋다. 그 전 학교는 우리 학교에 비해 좋지 않다. 혁신학교는 너무너무 좋고,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서 떨어지지 않고 같이 이끌어 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더 열

심히 해서 더 훌륭한 꿈을 이룰 것이다.

내 꿈은 경찰관이지만 더 열심히 해서 더 훌륭한 꿈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다짐은 혁신학교에서 보이는 쓰레기나 더러운 물건들을 주워서 우리 학교가 청결하게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학교로 만들 것이다. 난 그전 학교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나 싫었지만, 혁신 초등학교에 와서 친구가 이사 가게 되어 다른 초등학교에 가게 된다면 또 혁신학교에 가서 친구를 또 사귄다. 내가 혁신학교에서 열심히 행동한다면 좋은 학교가 되겠지? 난 학교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열심히 행동하고 선생님을 잘 따르고 친구들에게 잘 행동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5학년 000

‘즐거운 혁신학교 담당자연수’ 했어요

지난 10월 19~20일(화~수) 우리회 특별위원회 새로운학교만들기팀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즐거운 혁신학교 담당자연수'를 개최했다. 전남, 전북, 광주, 경기, 서울지역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날 연수에서는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혁신학교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새로운학교만들기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혁신학교 현황조사와 관련해 고양 서정초등학교와 남양주 월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 학부모, 학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11월에는 경기도 혁신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우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활동가 연수(강사훈련연수)를 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새로운학교만들기팀 인터뷰 일정

10월 15일(금) 시흥 장곡중학교
10월 20일(수) 고양 서정초등학교, 남양주 월문초등학교
10월 21일(목) 양평 수입초등학교
10월 27일(수) 파주 해솔중학교
11월 2일(화) 성남 보평초등학교
11월 3일(수) 성남 장곡여자중학교

*이후 고양 덕양중, 용인 흥덕고등학교 등 인터뷰 예정

녹색식생활 교육 체험을 시작하며



학교급식운동을 하면서 힘든 고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정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유통업자들과 높은 벽을 깨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2002년 급식운동본부 창립하면서 우리 농산물, 직영급식, 무상급식을 목표로 내걸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목표라 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했다. 힘든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영급식이 원칙화되었다. 급기야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최대의 이슈가 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힘든 고지 하나를 더 넘어야겠다. '무상급식'을 하면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무상급식'을 하면 학교환경 시설개선은 못하게 된다', '우리 친환경 농산물은 거의 없다' 괴 소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제부터는 교육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 생산자. 무상급식의 의미와 아이들이 정말 우리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좋아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집에서 간식을 만들 수 있도록, 교사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 하나가 그대로 몸이 된다는 교육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생활교육 지원법이 2009년 5월 법제화되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제정과 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창립되고 각 지역에서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참교육학부모회와 생협 단체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녹색식생활 교육 체험학교'를 지역별 6개 학교에 시범실시하기로 하였다. 한 학교 당 20명이 식생활교육과 6가지의 음식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부산에서는 그동안 학교급식운동을 해왔던 참교육학부모회, 생태유아공동체, 시민생산자생협이 체험교육

을 맡게 되었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떡과 한과, 생태유아공동체는 김치와 양갱, 시민생협은 수정과와 약밥 만들기를 담당하였다. 식재료부터 가구까지 싸들고 가서 120분 수업을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하지만 20명의 아이들이 6번 계속 참여하기 때문에 갈수록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마다 6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3개 단체가 2가지씩을 맡아 진행하게 된 것은 전문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었다.

한 번 할 때마다 소감문을 받고 있는데 제법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고, 왜 이런 음식을 두고 우리는 패스트푸드를 더 많이 먹게 되었는지 부모님들께 꼭 말하겠다는 아이도 있었다. 우리회에서 맡은 떡과 한과이야기는 우리 민족과 깊은 연관이 있는 쌀 이야기부터 잔치상의 과자이야기까지 옛날 이야기를 풀어 놓으니 아이들은 세 시간 동안 쉬는 시간도 없이 진행했는데도 끝까지 진지하게 참여해 참으로 예뻐다.

조금 먹어도 집에는 많이 가져가겠다고 봉지를 꼭 챙기는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을 12번이나 보게 된 것은 큰 행복이다.

김정숙(부산지부 정책실장)

음식을 통한 세상의 변화를 꿈꾼다

오랜만에 멀리 바닷가를 다녀왔다. 10월8일 낙동동부 초등학교는 영덕대진해수욕장, 21일 백원 초등학교는 마산고현미터덕마을에서 체험활동을 했다. 공교롭게도 두 곳 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다. 덕분에 왕복 4~5시간을 오가는 장거리여행을 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광역 시도마다 5군데 학교가 선착순으로 체험마을 신청을 하고, 그곳 아이들은 경비를 지원받아 원하는 농산여촌마을에서 체험을 하는 것이다. 내가 맡은 부분은 체험마을에 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하는 것이다.

음식이 음식이 아닌 세상에 음식문맹자가 많다. 미국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에 들어가 처음 한 일이 백악관 내에 텃밭을 가꾸는 일이었다고 한다. 유럽연합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채소 과일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 중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성장기부터 신선 채소 과일 중심의 식습관을 길러주고 실제 섭취량을 늘리기 위함이다. 또 급식 메뉴의 변화로 육류, 반조리, 가공식품을 신선채소 과일 중심메뉴로 바꾸어 가고 있다. 공식 급식식단 이외에 간식형태로 무상공급(정부, 지자체 등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은 <농장-학교직거래>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로컬푸드(지역먹을거리)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기술을 지원해 준다. 우리도 올해 초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곧 전국적인 식생활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살면서 중요한 것이 먹는 일이고 밥상머리교육인데 우리 아이들은 입시전쟁에 찌들어 음식에 관련한 문맹이라

할 정도이다. 삶의 기술로써 요리를 배우고 텃밭가꾸기를 통한 자연스러운 유기농, 로컬푸드, 신선도, 계절음식, 환경, 푸드마일리지(농산물의이동거리) 단축을 자연스럽게 배울 식생활교육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식생활교육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실험을 통해 내가 쉽게 사서 먹는 예쁘고 달콤한 것들이 첨가제와 방부제 유화제 향료 착색제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많다고 설명해 준다. 색이 진하고 고운 음료수보다 보리차나 생수를 먹자고 권한다. 내가 먹은 것이 삼대를 가는 것이니 만큼 우리 땅에서 제철에 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환경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농부에게 감사하는 배려의 마음자세라고 마무리한다.

우리 전통음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질을 해야 하는 일이 많은 만큼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평가해보는 것도 집에서 쉽게 먼저 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이다. 식생활교육은 우리의 먹을거리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일이다. 음식을 통한 세상의 변화를 꿈꾼다.

정복순(전 경북지부장/안동학교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

서울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2010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열었다. 우리회 박경양 전 회장과 박이선 전 수석부회장은 서울시 6개 교육청을 순회하며 '학교운영위원장 리더십 강화'라는 주제로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대

상으로 열린 강의를 펼쳤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서울교육정책 연수를 통하여 운영위원장의 역량과 책무성 강화,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의 리더십, 회의진행기법, 소통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연수를 개최했다.



2014년 대입선진화방안은 공교육을 포기한 개악안이다

이 글은 지난 10월 28일(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5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토론회 '정부의 수능개편안,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표한 발제 가운데 김학윤님 원고를 요약한 내용이다. <편집자주>



입학 전형 개선 방향의 문제점

지난 2010년 8월 19일,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총괄위원장 성태제)는 중장기대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는 8월말

까지 교육과학기술부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부는 9월 권역별 공청회를 가진 뒤 10월 말 정부안을 확정, 발표한다고 한다.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는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고, 수능시험을 개편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수험생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누적된 대학입시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초·중·고 교육과정을 더욱 파행으로 내모는 최악의 개편안이 될 것이다. 대입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입 전형 과정상의 문제는 '대입 완전 자율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대학 입시의 복잡화, 다양화로 인한 혼란과 사교육 의존을 막겠다고 제시한 '대입전형 개선 방안'들은 대학들의 요구에 맞춰 수많은 자료를 준비해야하고,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전형료를 지불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공감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 안들이 입시 문제 혼란의 원인을 제대로 짚고 제시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둘째, 대학-고교 연계라는 미명 하에 '대학과목 이수제'를 대입 전형 과정에 활용하려는 것은 특목고 우대정책이며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킬 뿐이다.

셋째, 수시 모집 전형 단순화를 빌미로 논란이 많은 입학사정관제 확대 정책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입학사정관제 정착안

입학사정관제는 소위 스펙이나 자격 요건을 위해 학생들을 학교 밖(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면서 사교육을 조장할 수도 있는 정책으로 특목고 열풍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해 본다 하더라도 실험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2014년도에 수시 모집 전원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겠다는 의도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하게 입학사정관제를 급격히 확대한 결과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서류 준비를 위해 갖가지 명목으로 교내 경



시대회 및 각종 행사를 치러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과 교사들의 부담이 증가하여 수업 부실로 연결되고 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작성하는 생활기록부 내용까지도 '더 좋은 입시 결과'를 위해 기록, 수정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외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수 목적고와 잘 사는 상위계층의 지역 학교와 학생들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이면서 고교 등급제와 같은 교육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아무리 MB 정부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조차 상위 계층의 자제들을 위해 다듬어졌다고 평가되는 입학사정관제도를 4대강 사업처럼 밀어 부치면 안 될 것이다.

대입 제도 개편 대안은?

대입 문제는 입시제도 개혁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전체 학제, 대학 체제, 노동 시장, 고교 체제 및 교육과정 등 교육 시스템 전체와 관련지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은 대학 문제, 즉 대학 서열화, 졸업생 취업 문제, 기초 학문 약화, 대학 등록금 문제,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학 개혁을 전제로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고교 체제 개편과 올바른 교육과정 개편이 이뤄지면서, 궁극적으로 입시 경쟁 체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우수 학생 선발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수학 기회를 주되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대학을 개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립대통합네트워크방안(서울대 등 국립대와 조건을 갖춘 사립대학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 교육하고 공동으로 학위를 주는 제도)과 대학평준화체제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대학별 논술고사는 폐지하고, 대학수능시험은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변경하고 교육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내신 중심의 선발)하거나 매정하는 방향으로 대학 입시를 개선해야 한다. 물론 국공립대 통합 전형이나 대학 평준화 방향이 즉각 도입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그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적인 합의와 현실적인 여건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대 통합 전형이나 대학 평준화 방안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면서 현행 입시 제도의 틀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시제도 틀 내에서는 입시제도로 전형 과정의 단순화, 트랙별 입시제도(내신, 수능, 논술, 적성 등 하나의 요소로만 학생들을 선발함) 등을 도입하여 가능한 한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수시 전형 응시 기회도 3회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계열과 학과를 통합하여 각 대학들이 같은 이름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학생들도 일관되게 동일계 분야를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특목고의 동일계 전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내 모든 과목을 수능 과목화하여 자신이 선택한 교과는 모두 치르게 하거나, 최소한 통합 교과 군으로라도 묶어 모든 학생들이 교양과 상식을 골고루 갖추도록 해야 한다. 획일적인 5지 선다형 시험 형태에서 벗어나 서술형 주관식 시험 형태도 병행하고, 점진적으로 논술형 자격 고사 형태를 지향하도록 한다. 끝으로 입시제도 개선은 입시 이외 분야인 사회 개혁을 전제로 한다. 정부가 사회 각 부분의 협조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입시제도만 개혁한다고 하여 입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입시문제는 노동 문제, 직업 문제, 학벌 문제와 연결되고, 이 문제는 입시제도 개선 차원을 떠나 전 사회의 문제이다. 한 예로 취업 시 학벌이 아니라 능력별 선발,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또는 지역 인재 균형 선발제만 도입한다 하더라도 입시문제는 크게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 각 부분의 개혁과 공조 체제 구축이 입시제도 개혁의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학윤(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운영위원, 우리회 회원)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어떻게 볼 것인가?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실시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개선'을 위한 작업이 교과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각각의 단체들에서 입장 정리를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과부는 12월초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원평가와 관련한 두 교원단체와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편집자주>

교원평가를 둘러싼 쟁점

1.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

- 평가 결과 미흡교사에 대한 의무연수 부과 여부
- 의무연수 부과(학부모 단체), 자율연수(교원단체)

2. 평가 참가자 축소

- 학부모 평가단 구성
학생 표집 평가 혹은 평가단 구성으로 학생 학부모 평가 참가자 축소(교과부와 교총)
- 전체 학생과 학부모 참여
학부모는 학교경영평가 강화, 교사평가는 담임 필수,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는 선택, 평가 문항 3~5문항으로 축소. 학생은 교과와 교과, 교사는 필수, 비교과 교사는 선택 (학부모 단체)

-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사평가와 학교경영평가를 일원화하여 학교운영평가로 통합(전교조)

3. 동료교사평가 방식(교원단체와 교과부 간 이견)

- 동료평가 대신 교과 혹은 학년 장학협의회로 전환

4. 교원평가관리위원회 구성

- 평가관리위원회 위상과 위원 추천단위, 위원장 자격 역할에 관한 사항(교총과 가장 큰 이견)

5. 교원평가 법제화

- 시도 단위 규칙을 근거로 학교 자율평가 시범 실시
- 법제화 지금 당장 필요하며 법제화 이후 나타나는 문제는 차후 보완(우리회 기본입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부적격교사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평가결과 미흡 교원에 대한 의무연수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율연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미흡 교원 의무연수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부적격교사 문제를 다루기로 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2010년 교과부 지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소되고 부적격 교사는 이제 실종되어 버렸다. 2005년 부적격 교사 문제를 '딴판수수, 시험지 유출 및 성적 조작, 성추행, 상습적 신체 체벌'이라고 하는 4개 영역으로 한정하여 부적격 교사 범주는 범법자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상습적 언어폭력 등의 문제교사가 부적격 교사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부적격 교사문제는 '교원징계위원회 강화'하고 '형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영역으로 써 별도의 기구가 필요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 왔다. 결국 학부모가 간접하게 원했던 '부적격 교원문제 해결을 위한 교원평가'는 제도도입 과정에서 실종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만 남게 되었다.

교원평가 결과 '미흡, 아주 미흡 교원'에 대한 '의무연수'를 통해 부적격 교원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이 차선책으로나마 제시된 만큼 이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의무 연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교원단체는 문제교사를 포함한 부적격 교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른 차원에서라도 스스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 과반을 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적용 반대

교육청이 인센티브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교원단체와 의 일정한 타협 결과로 보인다. 미흡 교사, 문제 교사 해결에 대한 의지는 미약하고 인센티브, 안식년제, 우수 교사선발 등에만 관심을 두는 교원단체의 주장은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의무연수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문제 교사를 구분할 수 있는 평가문화 개발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평가 참가자 : 표집, 평가단 운영 반대, 전체 학생과 학부모 참여

평가대상과 평가문항이 너무 많고 문항의 내용이 적절치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나 평가 참여자 축소를 통해 현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평가 취지와 목적에 위배된다. 학교에서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결국 그 평가단은 평소 학교 참여를 열심히 하는 학부모들이 또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 학부모들이나 맞벌이 부부 등 학교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은 또 제외되고 소외되게 된다. 그러므로 일부 학부모들의 의견만 개진되는 평가단 운영은 반대하며 학생 표집, 평가단 구성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반대한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별 교사에 대한 문항을 3~5개로 축소하고, 학부모의 경우 담임 평가는 필수, 그 외 교과전

담이나 비교과 교사는 선택한다. 학생의 경우 담임과 교과 교사는 필수, 그 외 비교과 교사는 선택을 해서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경기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문가 협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으며 대다수 위원들이 동의해서 경기도의 경우 평가 참가자는 학생, 학부모에게 모두 열어두되 평가문항 축소, 필수와 선택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관리기구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거나 학운위 내 소위원회 형식

▶ 별도의 기구로 할 경우 위원 추천은 학운위(혹은 교사는 전체 교사회의, 학부모는 학부모 총회)에서 하고, 교장 위원 겸직 금지, 위원장은 학운위처럼 교원이 아닌 사람이 맡아야 평가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평가가 가능하다.

▶ 그 외 학부모는 학교경영 평가에 좀 더 세밀하게 평가 내용을 확대하여 학교경영평가 중심으로 참여하고 개별 교사는 담임평가 중심, 그 외는 선택 평가로 하고, 평가문화 개발에 학생,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하며 이를 제도화한다.(평가 예문화 풀 마련) 또한 교원 각자의 교육활동 계획을 학기 초에 학부모에게 홍보(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 학년말에 그 시행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학부모에게 더 많은 정보제공을 하고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 기술훈 및 이를 위해서 학부모와의 정기적인(년 2회) 교육상담 내실화, 학부모회 활성화와 내실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정상화를 요청했다. 또한 평가목적에서 '등'을 삭제하거나 의미를 분명하게 하여 평가의 의구심을 제거해야 한다.

윤숙자(정책위원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전교조 입장

교원평가 문제로 토론을 하다보면 진보진영도 교과부의 논리와 구도 속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는 아쉬움이 있다. 전교조는 현재의 교원평가에 대해 구구절절한 변명으로 평가자제를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특히 부적격 교원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교과부의 교원평가 방안은 단언하지만 어떠한 제도적 보완을 하더라도 그 실패는 필연적이다. 물론 진보진영의 대안이 당장에 현실화되기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러나 본질이 다른 교과부의 교원평가 안에 땀방울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대안 실행을 통해 구체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바라는 것은 내년에는 각 교육청에서 '학교자치 시범학교' '학교교육활동 평가 시범학교' 등을 통해 어떤 평가 방안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 확인해보았으면 한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학교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 학교교육활동평가제도의 주요 원리는 학교 교육주체가 함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제도로서, 학교 단위의 교육주체 간 협력과 자율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내용은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기본적인 상만 제안한다.

평가 목적은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

학교종합평가제 시행의 목적은 현재 교장 1인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학교교육계획 수립과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학교구성원 모두가 계획, 실행, 평가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사실상 단절되어 있는 학교 교육 주체간의 소통구조를 회복하여, 상호소통의 민주적인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 즉 학교 교육계획을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수립하고, 교육활동 수행 결과에 대해 함께 평가를 하여, 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차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그리고 학급회의 및 수업평가회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 관계를 형성하여 교육적 기능을 되살리는데 목적을 두자는 것이다.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우선적 필요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교자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장이, 교육청의 교육감이 교과부의 눈치만 보고 강제하는 제도 하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이다. 즉 학교구성원의 자유로운 비판, 평가가 가능한 민주적인 학교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교사회, 학생

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평가제도를 인사 승진제도와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승진제도의 개혁, 교장선출보직제를 실시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평가안의 가장 큰 핵심은 '교육계획 ⇒ 실행 ⇒ 평가' 3단계를 3주체가 함께 하는 것이다. 교육의 계획수립과 실행, 평가의 주체가 분리되면 상호 협력적 평가나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지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수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일지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학부모는 지금의 교원평가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를 통해 학교교육계획 수립과 실행까지 함께 하고 평가도 함께 하자는 것이다. <지면관계로 생략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공개 가능>

한 가지만 덧붙이면 학부모들도 교사 평가를 통해 이른바 문제교사 몇 명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학교의 제도와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 현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1차적으로는 교장제도 개혁과 학교자치제 시행이 우선이라는 것은 보수 진영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문제교원 퇴출이나 해결 역시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학교장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책임질 문제이다. 부적격 교사도 있지만 "전국의 대부분 교장들이 이른바 부적격 교장인데 지금의 교사평가만 한다고 학교가 달라질까?"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일까?" 필자의 대답함이다.

동훈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좋은교사운동 입장

동료평가

교과부가 제시한 수업평가 체크리스트는 지난 수십 년 간 교단에서 수업발표와 평가에서 사용된 체크리스트와 대동소이 하다.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결과 대부분의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기 싫도록 만들어 왔는데 기술적인 완성도만을 이유로 이 체크리스트를 고집하는 것은 안타깝다.

우리의 수업평가에 빠져 있는 부분이 바로 학생들을 관찰하는 부분이다. 교사의 수업기술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이 일어나게 했는지 관심의 초점을 바꾸어야 한다. 수업을 평가하는 사람도 교사가 아닌 학생을 봐야 한다. 교사의 수업내용이나 기술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바꾸는지 결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수업평가가 바뀌어야 한다. 최근 혁신학교의 사례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배움의 공동체(사토 마나부), 수업관찰(서근원), 수업비평(이혁규) 등의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동료 평가가 온정주의 문제나 상호 갈등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 동료평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적 문화

를 만드는 것이다. 양적 평가에서 벗어나 질적 평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양적 평가는 책무 및 업무 영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모 평가

학부모 평가는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인터넷 방식 외에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방식을 제안한다. 평가 문항이 축소될 경우 모바일을 통한 여론조사 기술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휴대폰 요금에 비싼 인터넷 사용료가 추가되는 것을 걱정해서 접속을 꺼리겠지만 사진 홍보가 필요하다.

학부모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평가문항의 내용과 문항의 숫자 때문이다. 담임용(12), 교과전담(8), 사서(8), 보전(10), 영양(8), 전문상담교사(8)까지 평가해야 하고 학교경영(7)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해야 한다. 11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부모가 평가해야 될 최대 문항수는 142문항이다. 해당 문항을 꼼꼼히 읽고 체크를 하려면 족히 1시간 넘게 걸릴 수 있다. 문항수를 대폭 축소하고 담임과 학교평가만 필수로 하고 나머지 교사에 대한 평가는 선택으로

둘러야 한다. 그럴 경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교사나 정말 칭찬하고 싶은 교사에게만 평가하게 될 것이다.

학생평가

학생들 평가 역시 양적인 평가완성도를 강조한 나머지 질문들이 너무나 세분화, 전문화되어 일상성과 동떨어진 점이 많다. 학생 당사자가 평가하고 싶은 만족도에 관한 부분은 빠져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를 평가하는 항목의 1번과 2번이 자기 성찰적 질문이라는 영역이라 학생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항목이 들어갔다. 물론 교사를 평가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한 도입되는 이해하겠지만 쓸데없는 군더더기라는 생각이 다. 학생들은 굳이 이 문항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들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11과목의 수업을 듣고 있고, 영양교사(8), 보건교사(10), 사서교사(8), 전문상담교사(12)가 모두 학교에 있을 경우 최대 259문항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학생평가문항도 대폭 간소화 될 필요가 있다. 학생평가는 지금처럼 1년에 한번씩 실시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연 2회(1학기말, 2학기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1학기에 이루어진 평가 결과를 반영해 2학기의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거제지회

산청 선돌마을로 배따기 체험하고 한보따리씩 가져왔어요.



지난 10월 21일, 거제지회 창립 12주년 기념 학부모공개강좌로 '학부모가 행복해야 교육이 산다' 강수돌 교수님 열강 중!



경기지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식 및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이 있었어요.



경주지회

가을 정기강좌 1강 'EM 세제와 친환경살림법'을 경주 여성노동자회 운명희 사무국장 강의로 마련했어요.



가을 정기강좌 2강 자녀바로알기 '청소년에 대한 이해' 주제로 우리세상 안미향 대표 모시고 알찬 시간 가졌어요.



고양지회

1. 청소년봉사대가 '선유랑'에서 토란 캐기 활동을 했어요.
2.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풍물패 '흙마음'이 프랑스팀과 협연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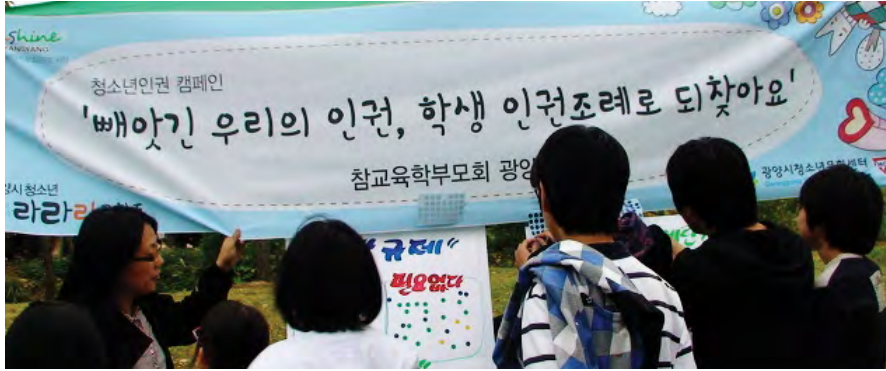


광양지회

제5회 농부네 텃밭도서관 생활문화큰잔치에 광양지회는 천연염색코너를 운영했어요.



지난 10월 25일 광양시 청소년 라라라 문화존에서 광양지회는 '빼앗긴 우리의 인권, 학생인권조례로 되찾아요' 스티커설문을 진행했어요.



김해지회

지난 10월 10일, 강을사랑하는김해시민의모임 주최로 '강은 생명이다'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어요.



강은 생명이다 작은 음악회 주변에서 거리선전전을 했어요.



나주시회

전남 가족한마당에 참가한 나주선수단



무등산 중봉과 세인봉, 갈대밭 누비고 왔어요.



부산지부

지난 10월 15일 부산교육희망넷 주최 김승환 전북교육감 초청강연에 다녀왔어요.



지난 10월 16일 우리회 초대회장 김영만 고문님께서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시상하는 '민주시민상'을 수상하셨어요.



수원지회

10.4선언 3주년 기념토론회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역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지회장이 참석했어요.



인천지부

1.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장 앞 일인시위-인천교육비리근절을위한시민모임
2. 지난 10월 12일 인천지부가 연대하고 있는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주최로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을 했어요.



파주지회

농장체험에서 코스모스 길을 가족용 자전거로 달리는 아이들



온가족이 애심농장으로 농장체험 다녀왔어요.



안동지회

◀ 제9회 어린이글쓰기 행사 후 안동 지회장님께서 시상하는 장면

지난 10월 9일 '참사랑 어린이 글쓰기 한마당'이 안동댐 물 박물관 일대에서 열렸어요. ▼



지부지회 소모임 - 포항지회 미르벳 지역아동센터

미르벳 친구들과 함께한 지난 3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포항지회 부설 아동·청소년 공부방으로 시작한 '미르벳'은 방과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대안적 보육 및 기초학습 지도 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9월 17일 개소한 미신고 시설이었다가 2009년 10월, 포항시에 신고를 하고 '미르벳 지역아동센터'로 거듭나게 된 아동복지시설이다.

처음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지역의 시의원 선거로 출마했을 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부터였다. 하지만 마음만 있을 뿐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지회에서 급식 및 아동 돌봄에 많은 손이 갈 것이 뻔한 공부방, 아동센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것은 좀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면 좋을 텐데...'라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 감히 사업을 시작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다 죽더라도 해보자!'라는 쓸데없는(?) 부추김으로 밀어부치는 우리 지회 임원들의 강권에 못 이겨 시작한 이 사업이 어느새 만 3년을 넘어서고 지회 중심 사업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용흥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을 통한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부모들의 보살핌을 대신하여 교육시민단체로서의 역할

을 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지회 사무실에 사람이 쪼여야 지회가 활성화된다는 평소 내 지론이 옳은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다. 부단히 뭐라도 해주고 싶어 애를 쓰는 나는 물론이고 시설장님, 복지사 선생님을 비롯한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노력에도 공부하자는 소리만 하면 울상을 짓는 아이들, 선생님이 와계신데도 "인제 가요~!"라며 느리거러미며 겨우 전화나 받는 아이들을 대할 때면 '아! 과연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하는 의문으로 답답해지기도 여러 번이었고, 지회 활성화가 아니라 센터 일에 매여 다른 업무는 거의 볼 여유가 없을 때도 부지기수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공부방 오는 걸 '와 주는 것!' 마냥 하던 아이들이 매일매일 안 빠지고 오으면서 오히려 자원봉사 선생님이 못 오시면 '선생님, 왜 안 오세요? 보고 싶어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걸 보며, 또 용돈 아껴서 선생님 드시라고 봉어빵 봉지를 들고 와 내미는 인구를 보며 '그래, 죽게 고달프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다' 싶어지는 때도 있는 게 이 사업인 것 같다.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하기 전까지의 경제적, 인적 자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넘어서는 고통을 지나 내년 운영비가 나오기까지 올 일년 간의 운영을 위해 빛을 저가면서 센터를 운영하는 보람! 게다가 지회 사

업이 소홀해지는 건 아닌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센터 행사 때마다 나와서 함께 해주는 지회 임원들을 볼 때는 이렇게 모여지는 힘으로 앞으로는 지회 사업도 더 잘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 지역아동센터 평가도 마쳤고 내년부터는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요즘은 우리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미르벳 지역아동센터 모두 더 발전하는 내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그래서 우리 '미르벳'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아이들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아동·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신현자(경북 지부장, 미르벳 지역아동센터 대표)



천국과 지옥 사이

평소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하면 즐겁고 보람되게 일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처음 만나면 날! 아동센터에 학교수업이 끝난 아이들이 들어올 때 마다 " 쌤,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남자 친구 있어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많은 질문을 하며 관심있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북적대며 지내다보니 즐거움도 많았지만 사 고도 많아 하루 온종일 있다 보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르벳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7개월가량 함께 지내오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여건이 좋지 않아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아이들이 수업시간을 지루해하는데 내년에는 좋은 환경에서 더 즐겁게 공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혜(생활복지사)

제일 즐거웠던 일!

올 일 년 동안에 가장 즐거웠던 활동은 여름 체험학습으로 월포 해수욕장에 놀러

갔던 일이다. 우리 센터를 졸업한 고등학생 형들까지 오고 중학생 누나와 형 그리고 동생들과 자원봉사 선생님들도 여럿이 처음으로 여름체험학습을 갔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나는 수영장에서 연수를 땀 자각증이 있어서 수영을 잘 했다. 주위의 사람들은 날보고 "우와! YMCA, 아키프초탄이다!" 하면서 칭찬을 했다. 으쌔쌔. 그리고 물 놀이를 하는 도중에 '바비'라는 외국인인양 친구가 되기도 하였다. 바비랑 놀다가 마지막 가기 전에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주었다.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삼계탕도 먹고, 카레도 먹고, 과일도 싹컷 먹었다. 그리고 여럿이 모여 단체 사진까지 찍고 돌아왔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즐거웠던 추억이다~!

윤성환(용흥초등학교 6학년)

나의 꿈

미르벳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체육시간에 축구를 한 게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골키퍼도 못했지만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은 골키퍼는 잘합니다. 6학년 형이 슛하는 공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슛 연습을 많이 해서 슛도 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뒤에는 슛-골인!! 하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센터에 안 올 때는 집에서 만날 텔레비전밖에 안 보고 심심했는데 공부방에 오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좋습니다. 나는 미르벳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좋습니다.

김용태(용흥초등학교 1학년)

미르벳지역아동센터와 나

미르벳에 다니면서 다양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여진 중학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업은 거의 1:1 과외나 마찬가지다. 그래서인지 공부방에 와서 시험성적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원외인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대학생 선생님 등 많은 선생님들을 접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해서 딱딱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방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은 다 친근하고 편안하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모르는 것을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물어보며 수업할 수 있었다. 그런 점이 내 성격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자원봉사 선생님들 가운데 학교 선생님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충고를 많이 해주셨다. 내가 중3인만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충고를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런 글을 쓰게 된 계기로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한지희(용흥중학교 3학년)

Q & A
상담실



친구와 다투다가 다친 아이의 치료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3주 전 학교에서 다른 아이와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눈 주위 뼈를 다쳐서 수술을 했다. 우리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 엉덩이를 건드렸는데 '땡장 뜨자'고 하면서 서로 때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아이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상태에서 무릎으로 눈을 가격해 크게 다치고 말았다. 우리 아이는 수술을 하여 치료비 300만 원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상대 아이는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과 의 말 한마디 없고 오히려 우리 아이의 치료비를 대줄 수 없으니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한다.

상대 학부모는 중학교 1학년때 우리 아이가 그 아이의 mp3를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은 일이 원인이 되어 싸운 것이므로 그 아이가 가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이가 원인 제공을 했다면 이것은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억울한 마음에 교육청 신문고에 글을 올렸더니 답장이 오기를 상대 학부모도 신문고에 올렸다면 쌍방이 잘 합의하라는 내용과 학교장에게 전화해서 잘 처리하라는 지시도 했다는 내용이었다.

신문고에 글을 올린 다음날 바로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는데 상대 학부모는 치료비를 낼 의향이 없다고 밝혔고 나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신청을 원한다고 밝혔다. 상대 학부모는 구상권을 청구될 것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학교에서는 신청했다고 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신청은 했지만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다.

교육청 관계자가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치료비 부담을 5:5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그 아이 엄마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5:5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상대 학부모가 사과를 하지 않고 중학교 1학년때 우리 아이가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은 mp3 값 10만 원과 상대 아이 치료비 30만 원의 반인 15만 원, 합 2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5:5고 뭐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우리 아이는 학교성적도 우수하고 전교 부회장이고 아주 모범적인 아이라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하다.

A 사소한 일이 폭력이 되고 서로 몸을

다쳤다니 무척 안타깝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자기방어 본능이 많이 분출되는 동시에 남보다 힘이 우세하다는 과시욕이 왕성할 때입니다. 대화보다는 힘과 주먹, 거센 말투가 강한 것으로 보여서 이를 모방하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다툼이 크게 번진 경우라 봅니다. 학교에서도 가해, 피해를 명확히 가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쌍방과실이라 봐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렇게 많이 다쳤는데 사과조차 없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서운하셨겠습니다. 아이의 잘잘못을 떠나 크게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나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상대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가해자로 몰릴 것이 두려워 사과도 안하고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2년 전 일이지만 자녀가 상대 아이의 물건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상대 아이가 이 아이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없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인 듯해서 상대 학부모의 입장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고 싶은 어머니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이가 받은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사과를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상대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수도 없고 만약 받아낸다 해도 진심이 없다면 안 받느니만 못합니다. 헛디시겠지만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접으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어떻게 보상하기로 결정하는지 기다려보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5:5로 부담하시는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억울한 마음은 부모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 자라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표현을 하시며 하루빨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아서 할게”

우리 집은 세 식구이다. 남편, 나,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아이는 열심히 놀아야 하고, 노는 장소는 자연이 좋다는 생각과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공동육아로 아이를 키웠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공동육아에서의 교육을 잊지 않으려고 많은 선택권을 주어서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하게 하고 학원교육이나 집에서의 학습도 하기 싫다하여 놀면서 그러저럭 잘 지냈다. 그래도 1학년 때는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지 시험 때가 되면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교과서를 들고 와서 이곳을 잘 모르겠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며 이것저것 물어 와서 '이 아이는 스스로 해야 할 것을 찾아서 잘 하는구나' 하며 우리가 잘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잠깐이나마 하게 하였다.

그렇게 한 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었다. 이젠 조금씩 숙제도 생기고, 규칙적으로 해야 할 일도 생겼다. 아직 시간에 대한 계획이 없는 아이에게 해야 할 일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하는데 “내가 알아서 할 게” 한다.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했다. 그때까지는 알아서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알아서 할게’ 하는 이야기는 ‘지금 하기 싫어’라는 대답인줄……。 아이는 이젠 학교에도 적응하고 부모의 교육관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해석도 하나보다. 스스로 하기를 바라며 “숙제 있네, 숙제 해야지”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한다. 그리고 논다. 하루 종일 논다.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집에 오면 좋아하는 카드 가지고 놀고, 옆집 형과 잠깐 놀고, 하루 종일 논다. “태준아, 숙제해야지” 하면 또 “내가 알아서 할 게” 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잠잘 시간이 다 되어 간다. 나는 걱정되어 “태준아, 자야하는데 숙제 어떡할 거니?”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한다. “아니, 알아서 언제 한다는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언성을 약간 높이며 이야기하면, “내일 아침에 할 거야. 나 졸려” 하며 잠자리에 쏙 들어가 버린다.

아니, 알아서 한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야지 다음날 아침 학교 가기 전에 한다는 것이 알아서 한다는 것인가?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잔소리를 해야 하는지, 참아야 하는지 머리가 멍해진다. 아니, 앞이 어질어질해진다.

친구들이 “태준아, 놀 수 있어?” 하면 항상 “어 난 켄잖아, 그렇지 엄마?” “난 학원에 아무 데도 안다녀” 하며 가랑 던져 놓고 달려간다. 친구와 노는 일이라면 엄마, 아빠와의 외식보다, 쇼핑을 가는 것보다 좋으며 친구와 약속을 정해버린다. 놀러 나가는 아이의 뒤통수에

다 “태준아, 너 해야 할 일은 어떡할 거야?”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대답과 함께 사라진다.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난다. 숙제도 안하고 준비물도 안 챙긴 채……。 드디어 중간고사 시험이 코앞이다. 그동안 놀기만 했어도 중간고사는 잘 보고 싶어해서 중간고사 시험 준비는 어떡할지 물어보니 문제지를 사달라고 한다. 수학은 자신 있고, 국어만 있으면 좋겠단다. 아빠가 얼른 사왔다. 그럼, 풀어야지. 안 풀다. “태준아, 문제지 사왔는데 풀어야지?” 돌아오는 대답은 “어, 알아서 할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험 날이 되었다. 문제지는 책상위에 잘 놓여있다. 새것인 양.

태준아, 엄마가 부탁할 말이 하나 있다. ‘알아서 할 게’ 하는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했으면 좋겠고, 알아서 언제 할 것인지 대충 시간이라도 엄마한테 알려줘라. 엄마는 속이 탄다, 속이 타. 그래도, 놀아서 새가맴게 탄 얼굴로 잠자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사르르 녹아버리고 건강하게 잘 크는 태준이가 고맙다. 오늘 하루 또 지켜봐주고 있다.

김정인(13기 상담원)



프랑스 사회교과서 들여다보기

—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시민으로 키워야 하는가?



장면1. 프랑스의 중학교 4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시민교육』 교과서의 3장 '정치적·사회적 시민의 권리' 단원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책 오른쪽에는 98년 프랑스 실업자들이 공공기관 건물에 진입해 각종 서류를 5층에서 아래로 뿌리는 사진이, 왼쪽에는 '실업자 운동'이라는 텍스트가 실려 있다. "실업은 생활을 굶아 먹는다" "부자 나라는 모든 국민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소재목이 이어진다. 다른 페이지에는 '최저임입금'이라고 써 붙인 창구 앞에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가 없는 사람 6명이 줄지어 서 있는 삽화와 털모자를 쓴 여성이 피켓을 들고 시위대 속에 서 있는 사진도 삽입돼 있다. 피켓에는 "모든 사람은 사회로부터 적절한 존재수단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프랑스 헌법 전문 구절이 적혀 있다.

장면2. 프랑스 고등학교 『경제사회과학』 2학년 교과서 마지막 부분 제15장은 사회갈등과 조정이다. 도입부엔 질문과 함께 3장의 사진이 제시된다. 사진1은 2002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협상테이블 사진. 페리에 생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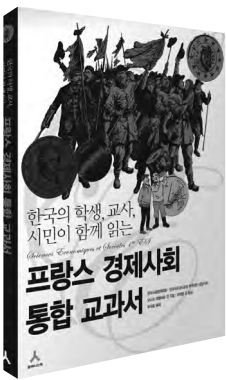
눈에 쏜다. 사진2는 1906년 광부들의 파업을 담은 지역신문 그림. 사진3은 2002년 몽블랑 터널에서의 시위장면이다. 내용은 전통적 갈등이 사회운동으로 이어지고, 사회는 이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설명해나간다.

장면3. 한국의 전경련은 사회과 교과서의 좌편향(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부분 등을 좌편향의 사례로 봄)을 바로잡겠다며 '기업편향' 경제교과서를 2007년 내놓으며 "학생들이 일과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냈다. 2007년 2월에 고시된 7차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에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등 5개 대단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은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현 정부에 의해 2009년 2월 재개정되었다. 전경련과 교과부가 "경제교육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단원의 이름도 △사회변동과 문화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제경쟁과 세계화 등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 영역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프랑스 시민교육과의 목표가 시민이 가져야 할 가치,

시민도덕, 기본권, 비판정신 등을 강조하는데 비해, 한국 사회과의 목표는 사회과학적 지식(우리의 삶과 철저하게 유리된)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시민교육은 현실과 괴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실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건 및 이슈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나 시사문제에 관한 주제를 수업과 토론의 대상으로 거의 제외하는 사회과 수업이나 각종 시험문제 풀이 중심의 한국 사회과 교육은 현실과의 접점을 잃게 되고 공공사안에 관한 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 근처의 시립도서관에서 『프랑스 경제사회 통합교과서』를 빌려 내 자녀의 사회 교과서와 비교해 보자. 내 자녀가 '착한 시민'이 되길 원한다면 이 책을 함께 읽어보자. 프랑스 대입 논술 시험인 바칼로레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김원태(산본고 교사)



■밥상머리교육(3)

유대인 한국인 비교-IQ 95 대 106, 노벨상 수상자 184 대 1, 문제는 밥상머리교육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들이 공부 잘해 명문대학에 가서 출세하길 원한다. 그러나 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애는 원래 날 닮아 머리가 나빠서 안 돼' 하고 자포자기한다. 그러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국인의 아이큐는 평균 106으로 대만에 이어 세계2위이나 노벨상수상자는 평화상의 김대중 전 대통령 외에는 없다. 그런데 우리보다 아이큐가 평균 10이나 낮아 95에 불과한 유대인들은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두 민족을 비교해보니 가정교육과 식생활습관의 차이였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수천 년 내려온 탈무드를 중심으로 한 전통가정교육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져왔고 매일 함께하는 저녁식사와 주말의 안식일 예배 등 대부분 가족 공동식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가정엔 수천 년 내려온 전통적 가치관과 이를 전수해온 밥상머리교육은 사라졌고 오로지 명문대를 가기위한 입시교육만 남아 있을 뿐이다.

1901년에 시작된 노벨상 수상자중 개인수상자는 모두 806명으로 이중 네 명 중 한명인 184명이 유대인이

다. '국경없는기자회'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뺀 개인 수상자들만을 따지면 22%이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은 총수상자의 41%나 되고 의학상은 27%, 물리학상은 25%였는데 이것은 가계의 절대 이상이 유대인인 경우로 한정된 결과이다. 이 때문에 미국인으로 분류되었지만 나중에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밝혀진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잭 쇼스택 박사처럼 '숨은 유대인' 까지 포함하면 출잡아 3분의 1은 넘는다. 본토 인구만 13억 명인 중국계노벨상 수상자가 지금까지 6명인 것을 비교해보면, 1,33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0.25% 남짓한 유대인들의 노벨상을 차지한 비율은 기적처럼 높은 셈이다. 또 세계 50대 기업 중 21곳이 유대인 소유라고 한다.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왜 우리에겐 노벨상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일까? 외교관 출신의 박재선 교수는 저서 『유대인 파워』에서 유대인이 노벨상을 독식하는 이유가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역사와 교육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나라를 잃고 이천 년 동안 세계 각지를 떠돌며 박해와 추방에 시달리며 살아남기 위해 가족이 뿔뚝이면 유대인의 역사와 전통적 가치를 담은 가정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들은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전통적인 가치와 식습관을 고수해왔고 이는 유대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유지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기여를 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심신이 안정돼 뇌기능이 좋아져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 당연히 공부도 잘하게 된다.

93년에 미국 텍사스 보건대 생리학자에서 연구 교수로 재직할 당시 스트리라는 한 유대인이 박사 후 과정에 있었다. 하버드대 생화학부 출신인 그는 유대인 특유의 굵고 긴 매부리코 때문에 매우 도도해 보였고 자존감도 커서 약간의 거부감마저 주었다. 하지만 최고의 실력과 책임감으로 실험실 생활을 해서 좋은 논문들을 써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는 매일 저녁 식사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했고 바쁘면 밤에 다시 학교에 나와서 일하는 독특한 습관이 있었다.

한번은 주말에 동료 연구원들을 집에 초대해 정말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안식일 예배가 함께 하는 2개의 촛불과 향기로운 꽃으로 장식된 유대인의 전통 식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정장차림으로 앉아 정말 배가 고파 창자에 들러붙었는데도 약식으로 해도 20분이 걸리는 식탁예배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았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샤블라누트'라고 불리는 데 이는 인내심이 강한 민족이란 뜻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밥상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을 키운다.

이기영(초록교육연대 상임대표, 호서대 교육대학원장)

전남지부 체육대회 '가족한마당'

지난 10월 9일 전남 장흥 실내체육관에서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 우리회 장은숙 회장님, 부회장님들과 전교조 전남지부 선생님들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더욱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준비체조로 몸을 풀고 마무리 폐회식까지 참가자들은 열의를 보이며 참여했고, 각 지회 응원석에서는 자기 지회를 응원하는 소리로 넘쳐났다. 그렇게 지회별로 응원하는 동안 모두 함께 단합되는 모습에서 전남지부의 협동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모두가 한데 어우러진 포크댄스가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서로의 손을 제대로 잡지 못하더니 어느새 한데 어우러져 서로 웃음과 손뼉을 마주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어 줄넘기 경기가 이어졌다. 평소엔 단체줄넘기는 1개를 제대로 넘기가 어려웠지만 목포지회의 줄넘기 가량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서로의 호응과 민첩한 동작을 원하는 5인 1조가 되어 한명씩 짝을 바꾸어 가며 뛰어 넘는 줄넘기도 이어졌다.

그동안 며칠 굶은 사람들처럼 점심시간이었다. 점심은 먹은 후, 광주지부의 '아름나라예술단'의 감격하고 귀여운 공연이 이어지고 광양지회의 풍물공연도 이



름이나 너무나도 풍족한 점심시간이었다.

점심을 먹은 후, 광주지부의 '아름나라예술단'의 감격하고 귀여운 공연이 이어지고 광양지회의 풍물공연도 이

초등학교 먹을거리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초등학교에서 23년째 근무하는 영양교사다. 얼굴 익히기 차원에서 학기별로 1회 정도 저녁 식사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교사들이 오랜만에 전내는 인사말은 보통 "요즘 급식 맛있게 먹고 있어요. 000(최근에 급식으로 나온 반찬종류)가 특히 맛있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다.

학교급식 공청회에서는 '양질의 급식...'으로 시작하는 글이나 강연을 자주 접한다. 과연 무엇이 양질의 급식일까? 고기를 많이 주거나 자주 나오는 급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향은 교원평가제도 일환으로 영양교사 업무에 대한 학부모 및 아동의 평가에 있어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포함되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더 심하다. 그러나 고기반찬 식사가 과연 좋은 식사일까?

나는 3년째 학교에서 '텃밭교육'을 하고 있다. 지렁이를 분양받아 아이들과 함께 만지고 배우면서 텃밭에 놓아주고 5가지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업 중에 아이들은 아주 행복해 한다. 평소에 산만하게 떠돌고 수업을 방해하던 개구쟁이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여 삼을 가지고 땅을 파면서 협동작업을 한다. 교사가 특별히 혼을 내거나 싫은 소리를 할 필

요도 없다. 친환경급식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키는 시범학교를 만들어 보려고 서울가양초등학교에서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였다. 급식비 인상 없이 기존 식품비를 가지고 친환경급식을 실시하면서 환경단체의 협조로 텃밭을 만들어 전제교사들이 교육을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고, 아토피전문 의사의 협조로 검진을 실시한 후 증상이 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건강사랑반'이라는 특별활동부서를 조직하여 1년 동안 먹을거리교육을 하였다.

또한 아토피는 학부모의 부지런한 협조가 필수적임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월 1회 먹을거리연수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에 힘입어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을 20.5%에서 13.4%로 현저하게 낮추는 결과를 얻었다. 혈액검사 등 전문적인 의료검사를 통해 얻어진 수치로 친환경급식과 먹을거리교육을 통해 현대질병 예방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친환경급식은 새로운 제도가 아닐 정도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동참하고 있다. 이 제도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먹을거리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면 아토피는 물론 천식이나 ADHD중후군 등 각종 질병도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먹을거리교육은 질병관리만이 아니라 자신감을 회복한 아동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신감도 함께 갖추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어졌다. 나른함을 제치고, 뜨거운 응원전이 이루어졌다. 나주지회의 뜨거운 응원전은 단결력과 집중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아이들의 뜨거운 함성소리는 실내체육관을 떠나가게 할 정도였다.

전교조 전남지부 선생님들과 우리회 전남지부 회원 간 친선배구경기가 열렸고, 이어 지회별 배구경기가 이어졌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의 과자 따먹기 경기가 열렸다. 여장남자 아름다운 미녀 선발대회에서는 배꼽을 잡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어달리기를 할 때는 마지막 열정을 다 바쳐 힘껏 달리는 모습에서 참교육학부모회의 밝고 힘찬 앞날을 내다 볼 수 있었다.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우승지회인 광양지회는 상품을 수여받았고, 각 지회별로 참교육상 등 모두가 상품을 받고 응원석을 정리한 뒤 안전하게 귀가했다.

이번 체육대회를 지켜보면서 특별히 팀워크를 많이 생각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서로 팀원이 하나 되지 않으면 우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린이날 체육대회를 연상케 할 정도로 자라나는 새싹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석해 주어 더욱 빛났으며 마음껏 소리 지르고 뛰어놀던 시절로 되돌아 간 것 같다. 너무 즐겁고 신이 난 하루였다.

노경자(전남지부 감사)

특히 초등학생들은 아직 식습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다양한 먹을거리를 먹어보며 안전하면서 영양이 높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익혀야 한다. 아이들은 학교급식 외에도 식품을 접할 기회가 아주 많다. 친구들과 함께 먹거나, 가족들과 외식을 하는 등 자신이 먹을 식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직도 먹을거리 지도를 대체로 담임교사들이 하고 있다. 지도내용이 교사의 성격, 성별, 나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며 교사용지도서도 없는 현재 여건에서는 점심시간에 학교급식 남기지 않기 정도를 지도하는 정도다. 또 대부분의 담임교사는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맡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먹을거리교육까지 그 내용을 스스로 준비하여 가르치기는 어렵다. 이러한 때, 이제까지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영양사제도를 폐지하고 영양교사라는 새로운 틀을 준비한 것은 잘된 일이다.

'식생활지도법'이 마련되어 사회 각 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학교 급식교육도 영양교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단위학교 영양교사들이 동료교사들로부터 "좋은 먹을거리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나 잘 먹고 성격도 좋아졌어요"라는 감탄사를 듣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성정림(화계초등학교 영양교사)



무엇이든 넣었다 꺼내면 똑같은 것이 자꾸자꾸 나오는

신기한 독

어느날 농사꾼이 밭을 일구다가 켤이를 넣으면 켤이가, 엽전을 넣으면 엽전이 자꾸자꾸 나오는
신기한 독을 발견해요. 동네 부자 영감도, 고을 원님도 신기한 독이 욕심나서 빼앗으려 해요.
농사꾼에게 신기한 독을 빼앗은 원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량한 백성들에겐 소박한 희망이 되고 욕심 많고 힘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만드는
신기한 독에 풍덩 빠져보세요.

온 겨레 어린이가 함께 보는 옛이야기 3



홍영우 글 그림
44쪽 | 값 11,000원



온 겨레 어린이가 함께 보는 옛이야기

우리 겨레의 슬기와 정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이야기들,
약자 편에서 세상을 대하는 민중성이 돋보이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뽑아내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옛이야기에 담겨 있는 우리 조상들의 '삶과 생각, 슬기와
용기, 웃음과 눈물'을 즐겁게 배우고 깨칠 수 있습니다.



정신없는 도깨비
서정오 글 | 홍영우 그림
40쪽 | 9,800원



달랑새
서정오 글 | 홍영우 그림
44쪽 | 9,800원



불씨 지킨 새색시
홍영우 글 그림
곧 나옵니다.

누리집 www.boribook.com | 블로그 boribook.tistory.com | 전화 031-955-3535 | 트위터 @boribook

바른 소리·바른 단체를 돕는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 **한겨레 21**

마음에 드는 표지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찰떡궁합 시민단체를 찾아보세요

A 위아더월드형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북아평화연대
부산민주환경기생사협회
여성환경연대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청년평화센터
페어트레이드코리아
평화네트워크
평화박물관추진위원회
한국공정무역연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동물복지협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B 배서운 눈초리형

공공미디어연구소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녹색교통운동
미디어스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연론시민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언론소비자주권국민연대
진실을 알리는 시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코리아연구원
학벌없는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C 함께 사는 세상형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차과외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장애인인권학교
두리하나
불탄터이21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한위사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행복한세상복지센터
희망의리브하우스

D 인권지킴이형

다산인권센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사회복지연대
아시아의친구들
연니네트워크
우랑
어린이에게동무
아주인과함께
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성취

E 대안 찾기형

고양시민회
대안영성문화발전소 아이공
로터스월드
문화연대
열린사회 시민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원주시민연대
인도망생공공단체
천국농민운동본부
지구촌나눔운동
평화와참여로가는안전연대
푸르메재단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청년영화협회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희망제작소

지금 한겨레21 혹은 코드블로 정기구독 신청하시면 구독료의 10%를 해당 시민단체에 전달하겠습니다.

<http://h21blog.hani.co.kr> | 02-710-0501~2

'강신주 철학강의'

- * 때 : 2010년 11월 23일~12월 21일(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 * 곳 : 전교조 서울지부 9층(4, 7호선 이수역)
- * 수강료 : 회원 5만원, 비회원 7만원
- * 주최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남부지회
- * 후원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 문의 : 강혜승 지회장(010-8733-0207)
- * 강사 : 강신주

	일시	내용
1강	11/23	철학과 인문학적 경험
2강	11/30	사랑 그리고 가족 이데올로기
3강	12/7	살아있는 형이상학으로서의 자본주의
4강	12/14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
5강	12/21	즐거운 주제로 살아가기

학부모 진로교육

"우리 아이 미래에 날개를 달자"

- * 때 : 2010년 11월 18일~12월 9일(매주 목요일) 10시 30분~12시 30분
- * 곳 : 서대문 한백교회 안병무홀(서대문역 1번 출구)
- * 대상 : 자녀 진로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 * 수강료 : 회원 2만 원, 비회원 3만 원(신한은행 100-024-869890 참교육학부모회)
- * 문의 : 참교육학부모회 교육팀(02-393-8900)

	일시	내용	강사
1강	11/18	세상을 바꾸는 천 개의 직업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2강	11/25	진로, 가치를 만나다	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3강	12/2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양운택(송탄고 교장)
4강	12/9	미래사회 이해와 진로교육 탐색	고병현(성공회대 교수)